

◇불교약사보리회는 98년 8월부터 지금까지 매월 둘째주 일요일 탑골 및 종묘공원에서 무료투약 봉사를 하고 있다.

5만명에 자비의 무료투약

약사보리회 3년3개월만에 발원 달성

매달 1회씩 1천명분의 의약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불교약사보리회(회장 나청자)가 최근 '5만명 무료투약' 봉사를 달성했다. 이는 98년 8월 약사부처님의 따스한 손길을 불우이웃에 전하겠다고 발원한지 3년 3개월만의 성과다.

그동안 보리회는 탑골공원과 종묘공원 등지에서 어려운 형편에 처한 무의탁노인, 실직노동자, 쪽방거주자, 소년 · 소녀가장의 고통을 덜고자 감기, 피부병, 위염, 소화불량, 관절염, 고혈압, 천식 등의 질병에 대한 약품을 무료 제공해 왔다.

5만명에 대한 무료투약봉사 달성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웃사랑을 통해 실천하겠다는 불자약사들의 열성과 자신의 일보다 남의 어려움을 먼저 생각한 자원봉사자들의 노고, 의약품 마련을 위한 재정적 도움을 아끼지 않은 수많은 후원자들의 성원들이 모여 이루어진 것이라 더욱 값지다는 것이 주위의 평가다.

이와 관련해 보리회는 지난 17일 안암동 승가원에서 5만명 무료투약봉사 달성을 축하하는 '후원의 밤' 행사를 열고 다시 한번 이웃사랑의 결의를 다졌다. 이날 행사에서 중앙승가대 교수 보각스님 등은 1천1만원의 성금 및 생필품을 전달했다 강유신 기자

소년원생 불심지핀 '가족사랑' 10년

공무원불자 안홍부 · 강인준씨



지역 불교학생회에서 만난 지난 90년부터 안양소년원에 수감된 청소년들을 함께 도우며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해 화제다. 이들은 바로 보건복지부 신행회 강인준(조사담당관 · 사진 오른쪽) 총무와 감사원 불자회 안홍부(감사관) 총무. 두 사람은 지난 안양소년원 측에 법회 공간을 강력히 요구해 법당을 개설하는데 핵심 역할을 했다. 또한 지난 10년동안 계속해서 매월 둘째 넷째 주마다 열리는 법회에 참석, 진행을 돕는 것은 물론 소년원생 불자들에게 나눠줄 사식까지 제공해왔다.



◇안홍부 · 강인준 씨가 안양소년원의 부처님 오신날 법회에 참석한 소년원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것은 85년. 영남지역에서 고교시절 불교학생회 활동을 했던 불자들이 모여 '부처님마을'이라는 신행단체를 결성할 때, 강 씨는 경주고등학교를 다니며 법장사 불교학생회에서, 안 씨는 대구사대부고 불교학생회에서 활동했던 인연으로 참여해 도반의 정을 쌓았다. 이 때 만난 두 사람은 부처님마을의 활동에 만족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불우한 이웃을 돕고 포교할 수 있는 곳을 찾았다.

이들의 서원은 90년 안 씨에 이어 강 씨가 울산에서 서울로 전보발령 받은 후 실현됐다. 당시 부처님마을 서울지부는 안양소년원의 종교위원으로 활동했던 수원 봉녕사 스님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했는데, 이를 본 두 사람은 후원을 하되 법회에 직접 참여해 원생 불자들과 교감하고 그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부처님 마을' 결성때 인연
떡볶이등 사식 손수 요리
"마음 밝아져 출감때 보람"

두 사람이 소년원생 불자들에게 쏟은 정성은 법회에 참석할 때 준비해 가는 사식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두 사람은 "음식에는 정성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계절에 따라 옥수수, 고구마, 밤 등을 찌는가 하면 떡볶기를 직접 요리해 들고 간다. 이는 원생 불자뿐만 아니라 다른 원생들의 눈에 초코파이 등을 들고 오는 타종교 봉사단과 크게 비교됐고, "불교는 종교가 아니라 '가족 사랑' "이라는 생각을 갖게 해, 법회에 참석하는 소년원생들이 늘어나는 계기가 됐다. 현재 약 40여 명의 불자들이 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관세음보살'을 사경해 오면 선물을 준다든지, 부처님오신 특별행사를 열고, 중 · 고등학교 방학시즌에 맞춰 소년원 내에서 여름 및 겨울불교학교를 진행하는 등 프로그램 다변화도 꾀했다.

"부탄가스에 중독됐던 한 아이가 해맑은 눈망울로 출감할 때 가장 기뻤다"는 강인준 씨는 "일 때문에, 또 넉넉하지 않아 법회를 꾸리기 힘들 때도 있지만,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원생들을 생각하니 절로 힘이 생긴다"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주민아픔 살피는 보살행정 다짐"

용산구청불자회 23일 창립법회

서울 용산구청불자회가 23일 오후 6시 원효사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창립법회에는 지도법사인 원효사 주지 영한스님, 김상헌(용산3동 동장) 회장을 비롯해 40여 구청 공무원 불자들이 동참해, "주민들의 아픔을 알고 보살행을 펼치는 참된 공무원 불자가 될 것"을 서원했다.

"밥짓고 청소하는 일도 수행이죠"

아제아제 답사모임 망월사서 불교체험

18일 30여 청년 불자들이 전남 영암 망월사를 찾았다. 주지 정관 스님에게 사찰요리를 배우기 위해 아제아제불교문화답사모임(회장 정재훈)이 이 곳을 답사지로 정한 것이다.

"밥을 짓고 국이며 나물을 조리할 때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사찰에서는 사람이 먹는 음식을 만드는 일도 수행이라 여깁니다. 그래서 그 맛은 곧 수행의 깊이를 나타냅니다."

오전 10시 30분경 망월사에 도착한 답사모임은 108대참회문을 읽으며 108배를 올린 다음, 스님의 지도로 땔감을 구해오는 불목에서 상을 보는 간상, 반찬을 만드는 채공, 국을 끓이는 갱두, 밥을 짓는 공양주의 역할까지 하나하나 소임을 맡아 온갖 정성을 쏟아 사찰음식을 만들었다.

이어 답사모임은 발우공양으로 점심을 먹고, 도량 곳곳을 깨끗하게 청소한 뒤 정관스님이 건네는 차를 마시며 사찰음식에 깃들어 있는 수행의 의미를 배웠다.

아제아제불교문화답사모임 이해무 답사담당은 "스님과 함께 사찰음식을 만든 14차 답사는 불교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며 "탑이나 불상 등의 문화재보다는 전통 불교문화에 포커스를 맞춘 프로그램을 답사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게시판

강좌

▲미타불교대학 불교강좌=불면암 서울포교당 미타불교대학은 2002년도 교육 일정을 세우고, 수강생을 모집한다. 내년 3월부터 매주 화 · 수 · 토요일 교리 · 참선 · 경전반으로 진행되며 불교입문, 경전강해, 참선 및 선학 등의 강좌가 마련됐다. (02)955-6411

알림

▲덕진스님 출판기념회=덕진스님(울산 정토사 주지)의 수행과 포교담 그리고 경전해설을 수록한 <불국토의 새벽을 여는 사람>(우리출판사) 출판기념회가 30일 오후 2시 동대문구 한국불교금강선원에서 열린다. (02)969-2410

모집

▲전통스쿠터 무료대여=성북노인종합복지관은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장애인의 근거리 이동을 돕기 위해 전동스쿠터를 무료로 대여한다. 대여기간은 1회 대여 시 1~3일. (02)929-7950

▲녹음 및 점자도서 제작봉사자=은평구립도서관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녹음도서 성우 및 점자점역사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2)385-1671

▲수지침 수강생=안양시 노인복지센터는 해울학교 수지침교실 수강생 및 영어지도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수지침 교실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 시작한다. (031)455-0551

▲일어회화 수강생=삼전종합사회복지관은 일어회화 초급반 수강생을 모집한다. 선착순 20명. (02)421-6077

인터넷 화상 무료 법률 상담
law.buddhapia.com
■전화상담 : 매주 월~금 (오전 11시~오후 4시)
☎ 02)596-7231
■방문상담 :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4시)
☎ 02)722-4162

'마음고요 禪房
마음고요 선방의 명상 프로그램들은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을 위해 열려 있습니다.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정목스님과 함께 하는 '나를 찾는 명상'
❋ 매월 음력 초사흘 오전 10시 30분 : 정기법회
강남구 신사동 4거리 (전철 3호선 신사역 5번 출구)
☎ 02) 548-0218 FAX 02) 548-0219
E-mail : maumgoyo@hanmail.net

우리 모임에선

건교부 불자회 수계법회

건설교통부 불자회는 17일 북한산 보광사에서 수계법회를 열었다. 이날 수계법회에 동참한 송도근회장(교통관리국장) 등 75명 불자회 회원들은 남산 정일스님(선학원 이사장)을 계사로 계첩을 받았다.

경주시청 교리특강

경주시청불자회는 29일 경주 불국사 문화회관에서 11월 마지막 주 정기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20여 회원들은 불국사 포교국장 정법스님에게 '불교기초 교리'에 대한 법문을 듣고, 성지순례와 불우이웃돕기 등 12월 사업계획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성북경찰서 순례결산



서울 성북경찰서 성불회는 21일 오후 서울 흥천사에서 11월 정기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법회에 민철기 회장(보안과장) 등 30여 회원들은 10월 강화도 보문사, 전등사 사찰순례 법회를 결산하고 서울 흥천사 주지 법운스님의 법문을 들었다.

도시철도 관음정근

도시철도 법우회는 17일 오후 장암역 부근 석림사에서 1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야외법회를 가졌다. 지도법사 없이 회원들의 관음정근으로 진행된 이날 법회에서는 내년도 달력 제작,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철새 모이주기 방생

석불선양회 철원평야서

전국의 산하를 다니며 야외에 소재한 돌부처를 친견, 공양하고 있는 한국석불선양회(회장 이귀인)가 한 해 동안 실시한 순례법회를 회향하는 의미로 '철새 모이주기' 행사를 마련한다.

12월 9일 우리나라 최대 철새 도래지인 강원도 철원평야에서 마련되는 이날 행사는 야외법회에 이어 미리 준비한 옥수수와 밀 1000kg을 철새들에게 나눠주는 것으로 진행된다. 철원평야는 두루미와 재두루미를 함께 볼 수 있는 세계 유일의 철새 도래지이다. (019)267-7965